

## 낙농강국과의 FTA대비 중장기 낙농산업발전대책 조속히 수립되어야..

청년 낙농인들이 정부가 미국, EU에 이어, 호주, 뉴질랜드까지 FTA 개시를 선언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대비하여 고착상태에 빠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

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(위원장 이명환)는 3월 11일(수) 2009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, 2009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.

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사업계획으로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, 낙농산업 관련 제도 개선, 낙농현장의 애로사항 및 민원 해결, 지역농가 여론형성 및 분과위 조직활성화 등을 4대 활동과제로 채택하여 농가 권익대변 활동을 지속 전개기로 했다. 특히, 낙농강국과의 FTA체결이 올해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,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공감하고, 협회활동과 병행하여 협회 전위부대로서의 분과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. 또한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, 지홍근 現경기도부위원장



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.

한편 임원회의에 앞서, 협회 이승호 회장은 2008년 원유가 현실화 관철을 위한 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김웅식 강원도위원장, 황형석 충남도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.